

제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도
극**

페스티벌

2011.5.20 Fri ▶ 7.10 Sun

미리내소극장 (504-2544/www.acen.kr)

창작



영순아 어디가니

작 : 이혼주
연출: 호민

7/1(금)▶7/10(일) 사직동 미리내소극장

獨 공연내용

**최고의 여배우 구민주의 귀환! 서정적으로 진행되는 여타의 여성 모노드라마와의 차별성!
강렬하고 긴장감 있는 전개와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객석을 사로잡는다**

날개 달린 천사가 되어 병든 엄마를 간호해주겠다며, 떠돌이 약장수를 따라간 어린 영순이.
이때부터 철없는 영순이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펼쳐진다.
세월이 흘러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날리고 절망감에 함께 죽자는 떠돌이 약장수 영감을 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영순, 영순이는 평범한 직장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한 마음에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떠돌이 약장수의 환영과 끝없이 이어지는 자살충동.....
자살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영순이의 삶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獨 작가의 말

2006년 가을, 경성대 앞 소주집에서 구민주선생님과 호민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원래는 구민주선생님과 단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당신이 낮을 많이 가리시는 편이라 하시면서
호민선생님과 함께 오셨다고 했다. 그날 늦게까지 두 분과 소주를 마셨다.
나는 첫애를 임신 중이라 술은 마실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연극만이 세상에 전부”인 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한 듯 안 취한 듯 다시 잊고 살았던 무대의 조명 속으로 빠져들었다.

낮을 가리는 배우, 구민주, 그런 그녀가..... 무대에서는 이상하지 않은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온단 말인가?

2007년 무덥기로 소문난 그 여름에 미리내소극장 재개관기념공연으로
구민주 모노드라마<영순아 어디가니>초연이 있었다.
나 역시 출산한 지 한달도 안된 통통 부은 상태였지만 공연장을 찾았다.
초연인 작품을 연습 중에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공연을 보러 가는 기분이란..... 뭐랄까,
내가 낳고 버린 자식을 한참 후에 다시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을까? 아무튼, 생경스러운 나의 기분은 복잡했다.
작품에 대해서 내가 쓴 텍스트의 한계는(두고두고 뒷골이 시리다.) 내 뒤통으로 남겨두고서라도,
구민주라는 배우의 열정과 에너지에 눈물이 났다. 사랑한다. 진정.

현재 2011년 <영순아 어디가니>와 같은 해에 태어난 우리 아이도 5살이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배우, 구민주선생님이 편찮으시다. 죄책감이 든다.
작품 때문인가 싶어서. 사실 난 이번 공연을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안되겠지....?
대신 이 지면을 빌어 나에게 약속을 해본다.
다음 작품에는 행복한 모습만을 기억하게 하리라.
누구도 삶의 허망함에 눌러 죽어가게 하지는 않겠다고.

작가 이혼주



Q. 이번 작품을 준비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이며
마음상태는 어떠십니까?

Q <영순아, 어디가니>는 4년 전 미리내소극장에서
처음 공연했고 그 이듬해 한 차례 더 공연을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2년을 쉬었다 오랜
공백을 1인극으로 치르려니 솔직히 적지않게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나 자신을 믿으며 차곡차곡 연습하다
보면 부담감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Q. 이번 작품이 자신의 배우인생에 있어
어디쯤 있으며 어떤 의미라고 느끼시나요?

Q 여러의미가 있겠으나 적어도 혼자
서있는 무대에서 내가 하는 연극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느꼈다는 것.

Q. 모노드라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관객의 입장에선 한 사람의 배우가
북치고 장구도 치는 것을 볼 수 있는
뷔페의 느낌일 테고
배우입장에선 온전히 나라는 배우 한 사람을
보러온 절대 우호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특권?? ㅎㅎ

Q. 모노드라마는 상당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작품인데요, 평소에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

Q 무대위에서. 무대속에서

Q. 배우입장에서 자신의 개성을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색일까요?

Q 보.라.색?!!

